광주 세계 광엑스포 100일 앞으로

행사장·부대시설 내달 마무리 28일간 빛고을 밝히는 빛축제

'2009광주세계 광엑스포' 가 개막 3개월여를 앞둔 가운데 대회 기반 조성 공사와 행사준비 작업이 70%대 진척도를 보이는 등 성공 개최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또 2일에는 광엑스포 D-99일을 기념하는 '희망의 빛 콘서트'가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등 행사 개최 분위기도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미래를 켜는 빛(Light, Opening the Future)'을 주제로 한 광엑스포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28일 간) 상무시민공원 및 김대중컨벤션센터, 구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2009광주세계 광엑스포 D-99기념 희망의 빛 콘서트'가 2일 시민, 학생 등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천여 업체 참여 1,470개 부스 빛산업 전시·박람회…200만명 이상 찾을 듯

◇준비 상황=주 무대가 될 상무시민공원은 전체 면적 6만9천219㎡를 무료 관람공간(8만8천23㎡), 유료 관람지역(14만798㎡)으로 구분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이 공원 일대에는 빛 주제영상관을 비롯, 빛 우주누리관, 빛 과학체험관, 빛 산업기술관, 태양광 홍보관 등 건축물과 빛 하늘 모험관 야외체험장, 무지개다리, 빛의 나무 등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 5월 부터 시작한 행사장 기반·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는 다는 복안이다. 주제영상관은 지난 3월께 착공돼 현재 60% 건축 공정이 진행중이며, 애니매이션 등 콘텐츠 마련 작업은 70%가량 진척됐다.

광엑스포재단은 주제영상관을 8월내 마무리해 개막 한 달을 앞둔 9월초부터 개막리허설을 갖고 시범운영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다음달 내로 광엑스포 행사운영 세부 매뉴얼 작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어떻게 치러지나=행사 주요시설인 빛 주제영상관을 비롯, 빛 우주누리관, 빛 과학체험관, 빛 산업기술관, 태양관 홍보관 등에서는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2009 국제광산업전시회', '2009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 '2009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등 6개의 전시회와 '국제광산업협의회 연차총회', '2009 국제광기술 컨퍼런스', 세계 빛 도시연합 연차총회'등 12개의 컨퍼런스와 컨벤션 등이 열린다.

10월 8일 엑스포 회장 내 상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식(전야제)은 '빛고을에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빛!'이라는 주제로, 공식개장식은 9일 오전 9시 20분 엑스포 회장 메인 입구에서 블랙이글팀의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개최된다. 한편 엑스포 기간 중 구도심 일대에서 '광주빛축제'가 개최돼 거리와 주요 건물 등에서 경관 조명을 밝힌다.

◇빛 관련 산업 박람회=산업전시·컨퍼런스에는 현재까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11개 국가 14개 도시와 필립스(Philips), 쏜(Thorn), PLDA(Professional Lighting Designers' Association) 해외 기업들이 최종 참가 의사를 통보해왔다.

광엑스포재단은 세계적인 기업인 필립스나 쏜과 함께 조명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인 PLDA가 참여하면서 세계 빛도시참여관은 물론 전체적인 전시의 질이 높아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엑스포 재단은 6개의 전시회와 12개의 컨퍼런스 및 컨벤션 등에 모두 1천개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부스만 1천470여개가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세계빛도시연합(LUCI)의 53개 참가국 중 30곳에서 최대 46곳까지 참여 의사를 확답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2009 국제광산업전시회'는 10월 13일부터 3일 간 한국 광산업진흥회 주관으로 30개국, 30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며, '2009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및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리는 등 광산업 및 첨단기술 관련 굵직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개최 효과=광엑스포 추진단에 따르면 200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 최대 2천540억원, 소득유발효과 최대 1천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1천420억원 등 모두 4천98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약 1만4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시의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한편으로 이를 도시개발전략과도 연계시키면서 '빛의 도시'로서 도시를 마케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소통 창구 넓혀질까

청와대 이달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

청와대가 행정관급(2~7급)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비서관 등 참모진 및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계기로 청와대와 광주·전남지역의 소통 창구가 확대될 것인지 주목된다.

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와대는 행정관(2~5급)과 행정요원(6~7급) 등 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6명이 3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별정직 27명과 일반직 26명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청와대는 조직개편 검토와 함께 이달 내에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각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들에 대한 연쇄인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최근 수석실별로 제출한 교체후보 비서관 명단을 놓고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서관급의 경우 지난 1월에 이뤄진 상반기 인사 때는 소폭이었으나 제2부속실장 교체를 계기로 비교적 대폭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에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를 계기로 지역과 청와대의 소통 창구 확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강윤구 사회정책수석과 정용화 연설기록 비서관 등 2명에 불과한데다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관도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펀드·패키지 대출로 40조 투자 유도

민관합동회의 '경기회복 투자촉진방안' 마련

기업들 적대적 M&A 방어 '포이즌 필' 도입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실시,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OECD 상위 수준으로 높이고 기업이 유보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와 기관투자가 추가참여 등으로 펀드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금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세액공제율이 기존 3~6%에서 OECD 최고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35%까지 적용해줄 방침이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인 것을 20% 수준으로 올린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시켜 비용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재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도청별관 해법 찾기 TV 토론회 열린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 도청 별관 철거문제에 대해 정부, 5월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는 TV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대책위원회'는 "'구 도청 별관 해법은?'을 주제로 4일(오전 9시~9시55분·광주MBC주관)과 6일(밤 11시30분~새벽1시30분·KBS주관), 1,2차에 거쳐 방송3사 TV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는 방청객 없이 진행되며, 4일 토론회는 같은날 밤 9시45분 녹화방영, 6일 토론회는 생방송된다. 1차 토론회에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별관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5월 단체, 2차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10인 대책위'는 옛도청 별관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